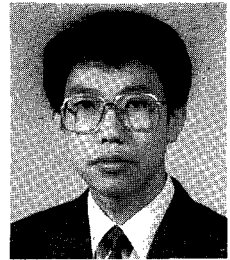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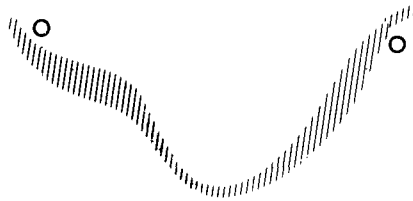


기형란 대책



송 덕 진
(주)중앙케미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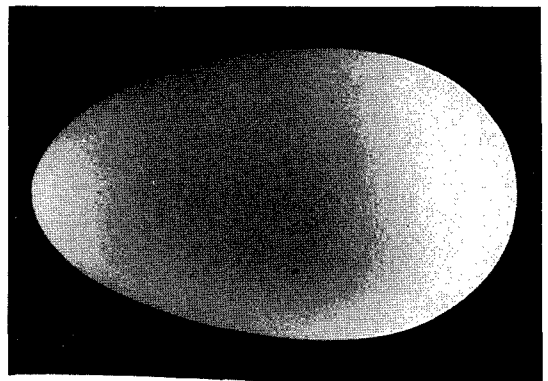
산란계는 계란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식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산란계의 생식기는 고도의 메카니즘을 지니고 있으며,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란생산을 진행시킨다. 관리가 잘되고 산란성적이 좋은 닭은 연간 3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 이와같이 많은 알을 지속적으로 낳다 보면 이따금 이상란이 나오기도 한다.

평면형 계란: 난각의 옆면이 주름이 잡히고, 평평한 모양을 하게되는 이상란으로서 전염성 기관지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형란은 석회화 초기단계에서 비정상적인 압력에 의해 수란관에 부담을 주게 된다. 효과적인 IB 백신프로그램과 정상적인 관리는 이러한 이상란을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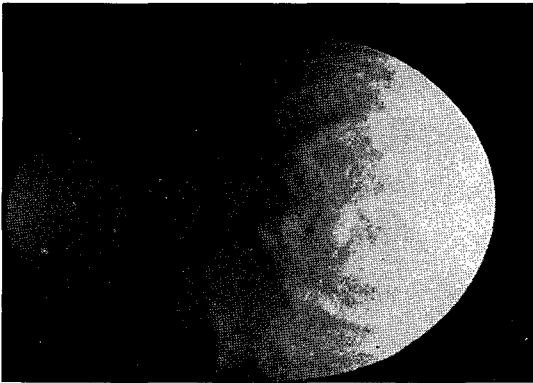
몸체가 우둘 두둘한 계란: 이런 계란은 깨지기 쉽고, 딱딱하게 경화 되는 과정에서 수란관에

부담을 주게 되고, 닭은 난각을 추가적으로 생성시켜 부담을 입은 수란관을 보호하려 한다.

대책으로는 닭이 난각을 형성 할 무렵인 오후 늦은 시각이나 해지기 바로 전에 계사내 출입 및 활동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밀사도 이런 기형란의 한 원인이 된다.



칼슘 침착란: 난각 표면에 작은 모양의 칼슘 덩어리는 쉽게 떨어지나, 때로는 작은 구멍이 남기도 한다. 이런 기형란의 원인은 아직 잘 알려 지지 않았지만, 수란관내 이물질이 그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품종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난각 이물질: 계란 표면에 혈반이나 분변이 묻어 있는 계란은 항문탈, 카니발리즘 등이 그 원인이며, 장염이 있는 닭 들도 혈반이 있는 계란을 생산 할 수 있다.

특히 산란 초기에 혈란이 많게 되는데, 산란 시까지 과비가 안되도록 하고, 부리를 잘 다듬어 주어야 한다. 분변에 의한 계란오염은 산란 케이지를 정기적으로 청소해 줌으로써 예방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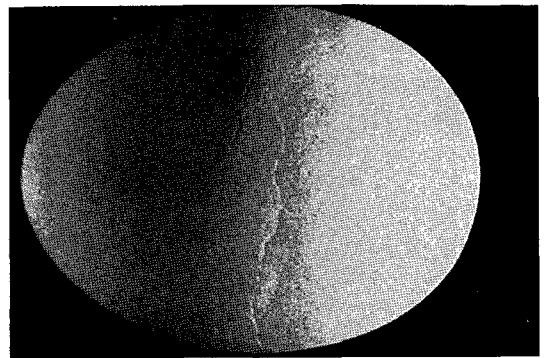
기형란: 앞에서 보았듯이 평평하거나, 끝이 꺾이거나, 자국이 있거나, 너무 둥그랗거나, 길쭉한 기형란은 약한 난각질을 가지고 있으며 IB와 같은 질병이나, 수란관 이상, 밀사 등이 그 원인이 된다.

혈란 및 육란: 혈란은 난황 및 난포 주위의 혈액 누출이 그 원인이다. 이들 혈관과 육란은

계란의 크기에 영향을 주게되며, 요리시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주게된다. 마찬가지로 품종간에 발생빈도의 차이가 있으며, 닭을 편안히 해 주고, 양질의 영양을 공급해 주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사료는 젓지않고, 곰팡이가 없는 신선한 것을 공급 하도록 한다.

쌍란: 계란 노른자가 두개 또는 세개 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란관의 생리적 이상에 의한것으로, 하나의 계란이 빠져나가기전에 또다른 난황이 도달 됨으로써 한꺼번에 난각으로 둘러 쌓이게 됨으로서 일어난다.



계란내 기생충: 계란내 기생충은 매우 드문 일 이나, 소비자가 느끼는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기생충에 감염된 기생충이 총 배설장을 타고 수란관까지 가서 계란내에 침입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구충을 실시하여 기생충 감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양계**